

새로운 미당 서정주 전집의 작업 과정

-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7권 자서전을 중심으로 -

노 홍 주*·윤 재 응**

< 목 차 >

- | | |
|-----------------------|----------------------------|
| 1. 논의를 시작하며 | 3. 새로운 서정주 자서전 정보 확정
과정 |
| 2. 기존 서정주 자서전 텍스트의 문제 | 4. 마치며 |

국문초록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은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산물로, 일지사에서 간행된 『서정주 문학전집』(1972)과 민음사에서 출간된 『미당 시전집』(1983·1991·1994)·『미당 자서전』(1994)에 이은 세 번째 전집이다. 2015년 6월 시 전집 5권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자서전 2권이 발간되었는데, 이 연구는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과 『미당 서정주 전집』 7권 '문학적 자서전'의 정보 확정 과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미당 서정주 자서전 텍스트의 문제를 짚어 보고 새로운 서정주 자서전 정보 확정 과정이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새로운 전집 작업이 단순히 옛 저작의 활자를 그대로 옮겨오는 작업이 아니라 정보 확정을 위한 치열한 판본 탐구

* 제1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 nohongju122@naver.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shouuu@hanmail.net

를 필요로 한다는 점, 작가의 표현과 독자의 수용 사이에서 섬세한 배려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과 7권 ‘문학적 자서전’은 기존 판본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학술적으로나 출판문화사적으로나 가장 성실하고 진일보한 텍스트이다. 이 자서전의 정착과정은 한국문학 작가들의 전집 정착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본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

주제어: 서정주, 자서전, 유년기자서전, 문학적자서전, 전집, 정본, 판본, 한국문학, 은행나무본, 미당서정주전집

1. 논의를 시작하며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은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산물로, 일지사에서 간행된 『서정주 문학전집』(1972, 전 5권)과 민음사에서 출간된 『미당 시전집』(1983·1991·1994, 전 3권)·『미당 자서전』(1994, 전 2권)에 이은 세 번째 전집이다. 2015년 6월 시 전집 5권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자서전 2권이 발간되었는데, 이 연구는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과 『미당 서정주 전집』 7권 ‘문학적 자서전’의 정본 확정 과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정주는 68년간 950편의 시를 발표한¹⁾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 그의 시력(詩歷)은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지만 산문 저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1972년 일지사에서 간행한 『서정주 문학전집』의 편제

1) 전집에 수록된 작품 수이다. 발표는 했으나 시집에 미수룩한 작품들은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 전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수룩 시는 260편 이상 조사되었다.

만 보더라도 서정주의 산문 저작이 얼마나 방대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전 5권의 『서정주 문학전집』은 1권 시집, 2권 문학론(시론·시인론), 3권 자전(自傳), 4·5권 수상록(수필·전기)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서정주의 산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서전의 정착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유년기 자서전’과 ‘문학적 자서전’은 서정주를 둘러싼 사회, 문화, 자연 등의 환경이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서정주라는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적실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서전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질마재 신화』(일지사, 1975), 『안 잊히는 일들』(현대문학사, 1983), 『팔할이 바람』(혜원출판사, 1988) 등에서 시의 형태로 변주되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시 작품만 접할 때보다 그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해 놓은 자서전을 함께 읽을 때 서정주의 작품 세계를 더 정확하고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다. 자서전은 서정주의 작품 세계를 풍부한 관점으로 조망하게 하며, 서정주 문학의 개성과 본질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서정주 자전시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서전의 경우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매우 정직하고 솔직하게 재구하고 있어 그 작가적 정직성이 작품 이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미당의 자서전은 그의 맛깔나는 산문 문체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특화된 리터러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연구 과제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³⁾

2) 이 중 3권에 실린 ‘내 마음의 편력’ 3편이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에 속하고, ‘천지유정’ 21편이 『미당 서정주 전집』 7권 ‘문학적 자서전’에 속한다. 은행나무본 ‘유년기 자서전’에는 일지사본 ‘내 마음의 편력’에 해당하는 ‘질마재, 줄포, 노풍곡’ 외에도 ‘어머니 김정현과 그 둘레’, ‘아버지 서광환과 나’가 실려 있다. ‘문학적 자서전’에는 일지사본 ‘천지유정’에 해당하는 21편 외에도 서정주가 월간문학지에 1974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재한 ‘속 천지유정’ 8편이 실려 있다. 일지사 전집 간행 이후에 발표된 자전적 성향이 강한 글들을 추가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이 은행나무본 자서전이다.

3) 본격적인 ‘자서전문’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 서정주 자서전에 관한 기초 논

이 모든 매력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도전적인 연구들이 “텍스트와 관련한 제 사실의 정확성을 결여”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텍스트의 정확성은 문학 연구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텍스트에 관한 시각과 해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다.”⁴⁾ 때문에 이 연구는 기존 판본들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여 정립된 정보로서의 은행나무본 서정주 자서전의 작업 과정을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자들과 독자들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거점을 마련”⁵⁾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기존 서정주 자서전 텍스트의 문제

은행나무본 ‘유년기 자서전’은 첫 연재지인 세계일보(1960.1.5~6.19.)를 저본으로 하고, 『서정주 문학전집』(일지사, 1972), 『도깨비 난 마을 이야기』(백만사, 1977), 『미당 자서전』(민음사, 1994)을 참고하여 재편집했다. ‘문학적 자서전’은 첫 연재지인 월간문학(1968.11~1971.05. ‘천지유정’ / 1974.02~11. ‘속 천지유정’)을 저본으로 하고, 『서정주 문학전집』(일지사, 1972), 『나의 문학적 자서전』(민음사, 1975), 『천지유정』(동원각, 1977),

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영진, 「서정주의 자전적 텍스트와 『화사집』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현식, 「시적 자서전과 서정주 시 교육의 문제」: 『안 잊히는 일들』과 『팔할이 바람』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

이은지, 「서정주의 시적 자서전에 나타난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유미, 「서정주의 자서전 고찰」,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4) 최현식, 「서정주 시 텍스트의 몇 가지 문제」,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3, 135면.

5) 남기혁, 「서정주 문학의 현재적 의미와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 『한국시학연구』 44, 한국시학회, 2015, 265면.

『미당 자서전』(민음사, 1994)을 참고하여 재편집했다.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 작업 시 활용한 판본

- 6-1) 세계일보 연재본(1960년 1월 5일~1960년 6월 19일)
- 6-2) 일지사본(1972년 10월 30일 일지사 발행, 『서정주 문학전집』)
- 6-3) 백만사본(1977년 4월 15일 백만사 발행, 『도깨비 난 마을 이야기』)
- 6-4) 민음사본(1994년 12월 2일 민음사 발행, 『미당 자서전』)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7권 ‘문학적 자서전’ 작업 시 활용한 판본

- 7-1) 월간문학 연재본(1968년 11월호~1971년 5월호 ‘천지유정’)
(1974년 2월호~1974년 11월호 ‘속 천지유정’)
- 7-2) 일지사본(1972년 10월 30일 일지사 발행, 『서정주 문학전집』)
- 7-3) 민음사본(1975년 10월 15일 민음사 발행, 『나의 문학적 자서전』)
- 7-4) 동원각본(1977년 7월 15일 동원각 발행, 『천지유정』)
- 7-5) 민음사본(1994년 12월 2일 민음사 발행, 『미당 자서전』)

이 중 최초 연재 지면(6-1, 7-1)과 전집의 지위를 가지는 일지사본(6-2, 7-2), 민음사본(6-4, 7-5)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존 서정주 자서전 텍스트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지사본은 첫 연재지 판본의 표기를 존중하지 않았다. 서정주의 어휘역이 넓어 편집자와 독자가 식별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최초 판본 표기를 현대어로 바꾼 듯하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집필한 초기 원고와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많다. 심각한 원본 훼손에 속한다. 문제는 이런 훼손 판본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으로써 일반 독자나 연구자들에게 원본의 의미를 영영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유년기 자서전’의 한 부분인 「줄포 14」를 보면 「추천사」의 집필 배경이 되는 ‘남숙과의 그네 타기’ 사건이 등장한다. 어린 미당은 흠모하던 남숙을 “향단으로 쓰는 짓은 차마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향단이 역할을 자처하고 남숙을 그네에 태운다. 이때 그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세계일보본

하이연 옥양목보선신은 두발을 사뿐히 근네우에 올려놓고, 웬일인지 이때만 은 초록이 선히 돌아보이는 두눈망울을 내게 번개처럼 잠깐 보내고는 두척 별처럼 하늘에다 모두아 놓았다.

*강조 표시—연구자

2) 일지사본

㉠하이연 옥양목 버선 신은 두 발을 ㉡사뿐 그네 위에 올려놓고, 웬일인지 이 때만은 ㉢촛점이 선히 돌아 보이는 눈망울을 내게 번개처럼 잠깐 보내고는, 첫별처럼 하늘에다 ㉣모아 놓았다.

*강조 표시—연구자

㉠과 ㉣은 색채 표현인 ‘하이연’과 모으다의 방언인 ‘모두다’의 활용형을 표준어로 고친 경우이고, ㉡은 부사 ‘사뿐히’에서 ‘히’가 삭제된 경우, ㉢은 ‘초록’을 편집자가 임의로 수정한 경우이다. ㉠, ㉡, ㉢의 경우 의미 파악은 수월하나 고유의 말맛이 사라졌다는 맹점이 있고, ㉣의 경우 작가의 표현 의도가 독자에게 부정확하게 전달된다는 문제가 있다.

「줄포 20」에서도 편집 과정에서 곡해된 부분이 보인다. 미당이 유년시절 아끼고 좋아했던 갈대밭을 묘사하는 부분에는 “갈밭이 선선히 하늘의 바람과 맞어우러져 사운거리는 소리를 아이들이 즐기게 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세계일보본에 ‘맞어우러져’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 일지사본에서 ‘맞아 울어서’가 되어 버린다. 이는 백만사본과 민음사본으로도 이어지고, 결국 ‘갈대’와 ‘바람’이 ‘마주 어울린’ 아름다운 풍광은 안타깝게도 세 개의 판본에서 원의가 왜곡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

「노풍곡 11」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어린 미당을 귀애해 준 요시무라 아야꼬 선생이 교편생활을 접고 다시 일본으로 떠날 때, 제자들이 울면서 전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정주와 급장 김형기 등 몇 사람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교단 위의 그가 서 있는 곳을 에워싸고 흐느낌의 울음 짓”는데, 이는 아이들의 슬픔과 아쉬움, 사랑이 마치 ‘울타리’처럼 요시무라 아야꼬를 에워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지사본에서 이를 “흐느낌의 울음”을

지은 것으로 변형하여 이별의 장면에서 웅기종기하고 애뜻한 성질을 휘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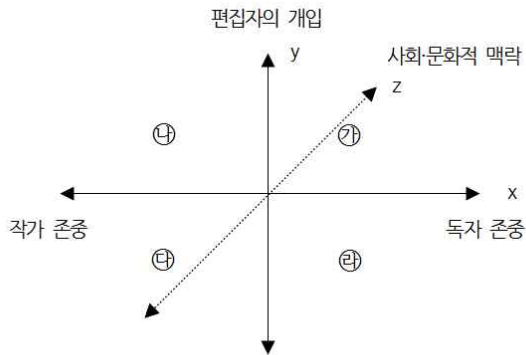
한편 ‘문학적 자서전’의 「동아일보사와 나」에서도 의미가 전와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열여덟 살 미당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평소에 흠모했던 인촌 김성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 인촌이 미당에게 언제 줄포에 도착했는지 묻자 미당은 “넉 시 반 차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인촌은 “네 시면 네 시고, 넉 점이면 넉 점이라고 말하는 법이지 넉 시가 무엇인가, 넉 시가? 제 나라 말을 그런 식으로 써서 되나?”라며 힐난한다. 기분이 상한 미당은 섭섭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방바닥만 보며 되게 꼴고 았았다가 이내 물러나고”만다. ‘꼴다’는 ‘토라지다’의 전남 방언으로 최초 발표지면인 월간문학에는 ‘꼴고’라 되어 있으나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에는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다’의 뜻인 ‘꿇고’로 되어 있다. 이는 본뜻을 곡해한다.

민음사본은 일지사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지사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일지사본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술한 오류를 양산했다. ‘유년기 자서전’의 「출포 21」에서는 ‘대포 호수’가 묘사되는데 미당은 대포 호수의 해감내가 “백제제 관세음보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의 수천 개의 그 나긋한 손가락들을 펴 어루만지듯 살과 마음에 닿아”왔다고 표현한다. 세계일보본에는 ‘백제제(百濟製)’, 일지사본에는 ‘百濟製’라고 되어 있으나 민음사본에는 ‘백제의’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접사 ‘-제(製)’의 쓰임이 생경하다 여긴 편집자가 교열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학적 자서전’의 「혹석동 시대 3」에는 작가 라프카디오 현의 일본 이름이 등장하는데 월간문학본과 일지사본에는 ‘小泉八雲’으로, 민음사본에는 ‘오이즈미(小泉八雲)’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고이즈미 야쿠모’의 오기이다. 독자들을 위해 한글을 병기한 편집자의 배려가 돋보이나 적실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

일지사본과 민음사본 모두 작가보다는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편집자가 개입한 경위가 도드라지게 확인된다. 전집의 작업 양상을 범박하게 도해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은데 x축에는 ‘작가 존중’, ‘독자 존중’이라는

작업 방향을, y 축에는 편집자의 개입 정도, z축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상징해 보았다. 이때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은 1사본면인 ㉠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림 1] 전집의 작업 양상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은 ‘독자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고어, 방언, 미당 특유의 표현 등을 표준어로 바꾸었다. 독자들의 수월한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작품의 탈개성화와 오류를 야기했다는 한계가 있다. 은행나무본은 ‘독자 존중’의 입장은 견지하되 기존 전집에서 왜곡·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자 최초 발표 지면을 세밀히 궁구하여 반영하였다. [그림 1]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1사본면 ㉡에서 2사본면 ㉢로 방향 전환을 꾀했다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서정주 자서전 정보 확정 of 과정

은행나무본 서정주 자서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107일 동안의 교정·교열을 거쳐(자료 조사 기간 제외) 2016년 2월 22일 발행

되었다. 최초 발표 지면과 기존 판본들을 기반으로 하되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정주 자서전의 정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3.1.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경우

‘유년기 자서전’의 「줄포 42」에서는 미당 아버지인 석오 서광한의 옛 친구 성산택의 애달픈 사연이 묘사된다. 성산택은 부모의 원에 따라 양반 혼사를 하기 위해 가난한 양반집 총각에게 시집을 가 사철 병골인 그의 양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피며 열심히 일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

…(전략)… 시집오니 그의 시갓집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가난뱅이 양아버지 참봉 한 분만 손위론 남아 있었는데 거기는 또 사철 병골이었었다고 했다.

그래 벋백거리나 가지고 온 걸로 세상에 있다는 약이란 약은 날이 날마다 다 구해다 달여 먹이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론 살을 갈아 가면서(그는 이렇게 ‘살을 갈아’란 말을 잘 썼다. 성산등 처녀 시절에 만든 살 내놓고는 그 뒤에 얻은 살은 염두에 없는 모양이었다) 목화 길러 무명베 짜고, 뽕누에 길러 명주베 짜고, **되야지 쳐 소 사들이어** 집안 살림 늘려 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다. …(후략)…

*강조 표시—연구자

-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6-유년기 자서전, 은행나무, 2016, 222면.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세계일보본에는 ‘되야지 쳐//소 사드리어’로,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에는 ‘뻬지 젓소 사들이어’로 되어 있다. ‘목적어+서술어’의 반복으로 성산택의 노력을 상술하는 문맥을 고려할 때 ‘되야지’는 치고, ‘소’는 사들인다는 초기 발표 지면의 표현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줄포’가 미당이 1924년 즈음에 겪은 일들을 술회하고 있는 부분임을 상기했을 때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의 ‘젓소’는 부적절하다. 서울유유 협동조합에 따르면 한일 합병 당시 착유 영업자 수는 61명이었고 452두의 젓소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일본인이 독점하였다. 우리나라 사람 중 유일한 종사자는 1910년 삼태 목장

을 개설한 성봉선으로 추정된다.⁶⁾ 1950년 4월 23일 동아일보에 실린 ‘가축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남한 전역의 젓소 사육 호수가 889동임을 알 수 있고, 이후 기사들을 통해 1960년대에 와서야 젓소가 보급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행나무본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앞선 예시와 같이 내용을 확정하였다.

‘문학적 자서전’의 「부랑하는 뒷골목 예술가들 속에서」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경우이다. 1941년 2월 이후의 상황이 술회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 문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월간문학본과 일지사본은 1988년 해금 조치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월북 작가들이 ‘李○岳, 任○河, 趙○植, 李○雨, 金○炯, 金東○, 吳○煥’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금 조치 이후 자료인 민음사본은 ‘이용악, 임 모, 조 모, 이 모, 김 모, 김 모, 오장환’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본들로는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읽어낼 수 없다. 은행나무본에서는 1988년 해금 조치 이전에 월북 문인의 이름을 복자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인명을 ‘이용악, 임서하, 조우식, 이시우, 김만형, 김동석, 오장환’으로 복원하였다.

3.2. 작가를 고려한 경우

‘유년기 자서전’의 「노풍곡 6」에는 미당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를 두고 한 질투’를 술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인물이자 글쓰기 과제를 칭찬해주어 미당이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운 은사 ‘요시무라 아야꼬’ 선생은 「내 영원은」(『동천』)과 「첫 질투」(『안 잊히는 일들』) 등의 창작 동기가 되는 미당의 첫사랑이다. 소풍날 하이힐을 신고 와 발병이 난 요시무라 아야꼬 선생이 ‘대목 뿌사리’처럼 힘이 아주 센 6학년 학생에게 업히자 미당은 그를 질투한다. 이 학생의 이름은 세계일보본에는 ‘신동근’, 일지사본에는 ‘辛東根’, 민음사본에는 ‘신동근’으로 되

6)서울우유협동조합, ‘우리나라의 우유역사’,

http://www.seoulmilk.co.kr/enterprise/milkstory/milk_history.sm, (2016.05.10. 검색).

어 있다. 그러나 『안 잊히는 일들』(현대문학사, 1983)의 「첫 질투」에 ‘복도뿌(朴東根)’이라 표기되어 있고, “朴東根이를 「복도뿌」이라고 일본말 발음으로 불러놓은 까닭은, 이때 우리 3학년 담임선생이었던 일본인 여선생인 요시무라 아야꼬 선생께서 출석부르실 때 늘 이렇게 부르셨으므로 그때 들은 인상 그대로 적은 것이다.”라는 주석이 있어 이를 존중해 은행나무본에서는 ‘박동근’으로 표기하였다.⁷⁾

‘문학적 자서전’의 「봉쾌 1」에는 「행진곡」이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서정주가 고창 경찰서에 구금되는 사건이 등장한다. 이때 서정주를 연행한 순사부장은 월간문학본과 일지사본에서는 ‘李○吉’, 민음사본에서는 ‘이 모’로 서술된다. 그런데 1987년 7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간스포츠지에 연재되었다가 1988년 혜원출판사에서 출간된 『팔할이 바람』을 보면 「다시 걸린 독립운동 혐의」라는 시에서 “전북 고창의 경찰서 고등계 주임인/이윤길 씨가 나를 잡으러 올라오고 있었는데,”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나무본에서는 「봉쾌」부분의 ‘李○吉/이 모’를 ‘이윤길’로 채워 넣었다.

한편 앞서 제시한 사소한 변화와는 달리, 대대적 변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유년기 자서전’의 「질마제 9」는 최초 발표 지면인 세계일보본과 바로 다음 판본인 일지사본의 내용이 상이하다.⁸⁾

세계일보본 「질마제 9」(1960) 해당 부분

내 어린 철에 처음으로 꽃이 있는 것을 보게 해 준 사람은 ‘서운니’라는 소

7) 전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 동일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씨나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미당이 실명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개인 신원을 보호하려 했을 수도 있고, 갈래의 특성에 따라 명명을 다채롭게 했을 수도 있다. ‘박동근’의 경우는 「첫 질투」의 형상화가 ‘사실감의 환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세계일보본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감의 환상’은 신비평의 ‘그럴 듯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진술된 사건이 현실과 가지는 관련성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서술이 그것 자체로 자족스러운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9, 68~69면 참조.

8) 두 판본 모두 세로쓰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가로쓰기로 필사하였다.

녀다.

몇살인가가 나보다 순위인 이 소녀는 처녀 때에 이승을 뗏지만, 그 때문에 그가 가르쳐 준 풀꽃들이 피는 이른 봄이 되면 내 마음의 푸른 궁창에 해마닥 되살아난다. 말하자면 내 속에 사는 여러 여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소녀귀신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귀신은 나이 어리게 생각되지 않는다. 인제 뒤에 내 소년 시절을 얘기할 때 말하게 될 금네보단도 훨씬 나이 어려서 내 앞에 있었건만, 꽃을 가르치던 선생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나이들게만 생각이 된다.

갈매빛(부실파빛)의 모초 저고리를 향용 입고 있었는데, 그건 '서운니'에게 잘 어울리었다. 어느 만큼 고음(高音)의—한겹소리가 아니라 두서너겹의 여울지는 그 음성에 비취셔도, 또 갓 핀 모란꽃 속 일 같은 특수한 여운을 먹음고 얼리던 그 미소에 비취셔도, 이 햇빛과 물빛을 함께한 모초의 빛같은 잘 어울렸다.

뭇 해 뒤에 세상 뜬 원인이 께병이었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지 얼굴빛은 초파일 무렵의 산달빛 비슷히 파르르했으나 그 살은 내 곁에 있을 때는 여인 편도 아니었다. 좀 넓은 편이어서 그리 뵈었는가. 하여간 이내 처음의 꽃선생이었던 귀신의 얼굴론 이 편이 이것도 맞아 뵈인다.

이 소녀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이름의 여러 가지 풀꽃들 가운데서도 까치마늘꽃이 이 소녀가 생각될 때마다 늘 오른다.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신다니 까치는 반가운 거고, 마늘은 어이턴 아르르 속에 베드는 매운 것이니까, 그 이름이 준 인상 때문인지, 하여간 난 오래두고 이 꽃과 이 요절한 소녀를 함께 생각해 왔다. 꽃인 즉, 이 소녀의 저고리빛보단은 햇빛이 좀 덜한 부드럽고 적은 난춧잎형의 잎사귀를 위에, 복사꽃빛의 복사꽃것들 반쯤씩 되는 꽃잎에 꿰뚫의 가느다란 줄들이 나열되어있는—그것하고 말이다.

“위어마아, 까치마늘났네, 정주 야, 아아잇”

서운니는 뒤 따르는 내 앞에서 걷는다느니보단 차라리 날라다니며 그의 특수한 음성의 여울을 짓었다. 들녘의 것 아니라, 첫 산골을 반 발꿈의 넓이로 오기 비릇는 여울과 같은 음성의 음악울.

“위어마아, 머슴둘레(민들레의 사투리)도 나왔싸야아, 아아잇!……”

그러면 틀림없이 이 소녀의 성악의 두서너 바탕에 한바탕쯤은 공중으로 노고지리가 치달아오르며 맥슬 돋구어

“깔깔깔깔, 깔깔깔” 허리가 자지러지는 양 소리쳐 웃으며 내 대신 대답을 했다.

금빛의 머슴둘레. 꽃자지빛의 시름꽃,—이 두 꽃이 까치마늘 그다음에 그의 음성과 가르치는 손가락 끝을 따라 탄생했던 것 같다. 그러고는, 꼭, 서운니의

기름발른 메리채 같은 각씨풀땀이. —이렇게하여 나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새로 보는 것 낮에 익은 것을 물을 것없이 풀꽃들이 새 새벽(開關)으로서 내 앞에 솟아오르는 것을 만나고, 또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인 찼다.

일지사본 「질마재 9」 (1972) 해당 부분

느티나무 堂山 밑의 내 어린 살 내음새와 땀이 뻘 그 바윗돌을 생각하고 있으면, 또 저절로 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서운니」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상한 소녀—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무슨 精靈만같이 느껴지는, 죄뜨만 이승 살이는 하고, 밝은 소녀 귀신으로서만 아는 이들의 기억에 남으려 생겨났던 듯한 그 소녀의 모양이다.

보리밭에서 새봄의 첫 종달새들이 하늘 한복판으로 치달려 오르며 까르르 까르르 끼르 끼르 까르르 웃어젖힐 무렵쯤, 아이들은 마을 사람 누구건 여기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나 말씀이나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거기 가장 민감하고, 자연히 무엇보다도 또 그 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생겨 나서 맨처음으로 그런 그편이 되게 하는 힘을 부린 건, 그 서운니라는 葛梅빛의 저고리를 입고 봄 보리밭 사이 나물 바구니를 겨드랑에 끼고 있던 그 夭折한 소녀 서운니다.

그건 내 여섯 살 때였던 듯하다. 점심 뒤의 아이들의 無聊로 나는 바로 우리집 뒷걸의 보리밭 옆으로 말하자면 암렁의 것에서 불거져 나간 한 마리 꿩 새끼마냥 단순히 불거져 나가 꽃 나막신이던가 그런 걸 신고 멈춰 서 있었는데,

『야, 정주야, 이리와!』

누가 그래서 보니 저기 어느 보리밭 골에서 서운니가 같은 또래 소녀들로 된 부하 도당들을 이끌고 그날 그 하늘 밑에서는 그날 종달새 소리와 제일 잘 어울리는 웃음 소리를 치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 저절로 그리로 이끌리어— 아니, 이끌렸다기보다는 빨리어 들어가니

『너 까치마을꽃 아직 못 봤제? 여기 이것 좀 봐. 아조 이뿌제?』

하고, 맨처음은 내 손을 잡아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내 머리를 그 분홍의 가느다란 縲이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어져 있는 그 죄뜨만 꽃 옆에다 바짝 떨어다가 붙이면서 나직히 소곤거렸다.

그래 그 까치마을꽃을 나는 그 뒤 지금까지 내 생시의 가장 깊은 구석, 또 꿈결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도 아주 잊지 않고 이어 느껴 내려오게 된 것이다.

서운니는 이어 두 손으로 내 두 귀를 되게 붙들어 잡고, 그 다음은 양쪽 야관지를 두 손바닥으로 받쳐 나를 부쩍 땅 위에서 추겨 울리기에, 왜 그러나 했더니

『정주야, 너 서울 보이제? 서울은 하늘이랑개!』

하곤 깔깔 깔깔 까르르 까르르…… 또 종달새 흡사한 웃음 소리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단번에 이 세상에선 서운니가 제일 좋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던 그의 말이면 다 무엇이건 기쁘고 또 믿게 되었다.

『너 아직은 고동 소리는 모르제? 들어 봐, 조용히 여기 까치 마을에다 코를 바짝 갖다 대고, 두 귀는 틀어막고 가만히 들어 봐, 들리지 안나? 날이 아조 맑으면 하늘에서는 고동 소리가 나는 것이라여. 옥황상제님의 누가 분다드라?……』

이것은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 이 서운니가, 그 아직 처녀는 까막득히 먼 여남은 살의 소녀의 입김을 내 코에 풍기며 소근댄 말이다.

나는 그래 그것을 들으려고 서운니가 하란 대로 양 손의 식지끝으로 두 쪽 콧구멍을 단단히 틀어 막고, 그걸 듣기에 애쓰고 있었는데, 내 코끝에 송알 송알 어린 땀이 배여 나기까지도 했던것 같다. 『들리제?……』 해서 『들린다』고 대답은 안 할 수 없이 했지만, 글썄, 그건 지금 기억으론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렸던 것 같기도 해서, 아스라하기만 하지만, 인제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그 옥황상제의 고동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나 보고도 들어 보라고 권했을 그 소녀 서운니의 모습이다.

뒤에, 孔子보다도 老子를 읽으면서 더 그 기억이 뚜렷해지던 소녀. 햇빛이 아주 연연히 밝은 날엔 거의 그 어디 숨어 소곤거리고 있는 소녀. —그는 숨을 쉬면 입에선 또 늘 마늘 냄새가 아스라히 풍겨 나오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 들어 보니 그건 그녀가 폐병앓이로 부모의 권고를 따라 마늘을 자주 구워 먹어 온 때문이었던 듯하다.

내가 내 「마흔 다섯」이라는 詩에서 말한 처녀귀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서운니를 주로 느끼고 있었다.

* 강조 표시—연구자

갈맷빛의 저고리가 예쁘게 잘 어울린 미당의 ‘꽃선생’ 서운니가 글의 중심 소재이며, 서운니를 회상하는 미당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두 판본이 동일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을 격해 묘사의 양이 늘어나고, 세부 묘사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지사본에는 「마흔 다섯」⁹⁾의 모티프가 서운니라는 서술이 덧붙여 있는데, 이는 「마흔 다섯」의

9) 1959년 사상계 8월호에 실린 작품으로 제5시집 『동천(冬天)』에 수록되었다. ‘마

온전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은행나무본은 두 판본 중, 첫 전집을 꾸리는 과정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가필했다고 판단되는 일지사본을 존중하였다.

이와 달리, ‘알흠’, ‘델롱거리며’, ‘사탕이’, ‘종기니’, ‘남시질살이’, ‘허천난 놈’, ‘햇눈(햇눈)’, ‘알대구리’, ‘띠앗띠앗하게’, ‘되우’, ‘굴형’, ‘나불거져’, ‘알밭’, ‘쩨매농게’, ‘아가베’, ‘모개’, ‘눈뚜껑’, ‘허줄한’, ‘꼬수야’, ‘등때기’, ‘찌끄레기’ 등은 초기 발표 지면인 ‘세계일보’와 ‘월간문학’본을 존중한 예이다.

[표 1] 초기 발표 지면 표기를 존중한 예(일부)

수록 부분	초기 발표 지면	일지사본	민음사본	은행나무본
질마재 1	알흠	진흠	진흠	알흠
질마재 2	델롱거리며	달랑거리며	달랑거리며	델롱거리며
질마재 3	사탕이	사타구니	사타구니	사탕이
질마재 15	종기니	죄니	죄니	종기니
질마재 17	남시질살이	남시꾼	남시꾼	남시질살이
질마재 24	허천난 놈	허기진 놈	허기진 놈	허천난 놈
질마재 33, 46	햇눈	한눈	한눈	햇눈(햇눈)
줄포 6	알대구리	맨대가리	맨대가리	알대구리
줄포 29	띠앗띠앗하게	따금따금하게	따금따금하게	띠앗띠앗하게
줄포 45	되우	되게	되게	되우
노풍곡 1	굴형	구렁	구렁	굴형
노풍곡 13	나불거져	나동그라져	나동그라져	나불거져
어머니 김정현과 그 둘레 4	알밭	맨밭	맨밭	알밭
조선일보 폐간 기념시 3	쩨매농게	처매농게	처매농게	쩨매농게

혼다섯은/귀신이 와 서는 것이/보이는 나이.//참 대 발 같이/참 대 발 같이//겨울
마늘 뽕/풍기며,/처녀 귀신들이/돌아와 서는 것이/보이는 나이.//귀신을 길들 만
큼 지긋치는 못해도/처녀 귀신하고도/상면은 되는 나이.’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1-시, 은행나무, 2015, 291면.

민주 광야에서 1	아가배	아가위	아가위	아가배
창피한 이야기들 2	모개	모과	모과	모개
신생 대한민국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 1	눈뚜경	눈두덩	눈두덩	눈뚜경
6·25 사변 6	허줄한	허술한	허술한	허줄한
개울로 끌고 가 쏘아 버려라 2	꼬수아	피어	피어	꼬수아
개울로 끌고 가 쏘아 버려라 2	등매기	등떠리	등떠리	등매기
명천옥 시대 3	찌끄레기	찌꺼기	찌꺼기	찌끄레기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이 표준어 표기를 지향하는 편제로 편집되면서 ‘알흠’, ‘알대구리’, ‘따앗따앗’ 등의 미당식 표현이나 ‘사탕이’, ‘헛눈’, ‘눈뚜경’, ‘찌끄레기’ 등의 방언, ‘종기다’, ‘허친나다’, ‘되우’ 등 굳이 교열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사장되었을 경우 이를 복원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개’와 같은 경우이다. ‘…소에게 먹히는 청맥(靑麥) 모개…’라는 구절에서 온당하게 쓰여야 할 ‘모개(곡식의 이삭이 달린 부분)’를 일지사와 민음사에서 ‘모과(모과나무의 열매)’로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서술이 곡해되었다. 이런 경우 문맥을 고려하여 첫 발표 지면의 표현을 살려 주었다.

3.3. 독자를 고려한 경우

‘유년기 자서전’의 「출포 11」에는 어린 미당이 염모했던 남숙이 미당의 새 책에 이름을 써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전략)... 그리고는 비로소 손수 벼루에 먹을 몇 번 문질러 붓을 축이어, 그 내가 어지럽히고 그가 닦은 자리에다 정성을 들어 **폐함**들을 지어서 내 성과 이름자를 써 주었다. 그리고 다른 책들에도 낱낱이 뒤 곁장 밧겉 한 귀통이에다 다 그렇게 써 주었다. ...(후략)...

*강조 표시-연구자
- 서정주, 앞의 책, 2016, 153면.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세계일보본에는 ‘폐암’, 일지사본과 민음사본에는 ‘폐암’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따를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렵다. 문학과 어학에 정통한 외부 자문위원 2인의 자문과 수차례의 편집 회의를 통해 ‘파임(패임)’과 ‘폐함(閉函)’으로 ‘폐암(폐암)’의 정체를 좁힌 후 무성 마찰음인 ‘ㅎ’이 유성음 ‘ㅋ’과 ‘ㄴ’ 사이에서 약화되어 ‘ㅇ’으로 변모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폐함(閉函)’을 최종 선택하였다. 글자가 일정한 네모 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본 것이다. ‘풍축’처럼 사전에 없는 어휘다.

...(전략)... “그리 말고 우리 이번엔 좀 연습해 가지고 써 보자. 글씨 쓰는 **풍축** 있지? 갖고 와.”

그는 킬킬거리는 웃음 다음에 이어 말했다. 그래 여기 와서 아직 풍축을 꾸민 건 없어, 그 어디서 남은 백로지 쪽을 하나 찾아다 놓았더니, 자기가 먼저 한번 그 석 자를 꽤 많이 써 본 솜씨의 정서로 써 보이고 나서 내 손에 갖다 붓을 쥐여 놓았다.

“어서 인젠 마음 탁 놓고 재주껏 한번 써 봐.” ...(후략)...

*강조 표시-연구자
- 서정주, 앞의 책, 2016, 151면.

풍축은 글씨 연습하는 ‘빈 종이’를 지칭한다. 창호지나 화선지 위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축을 아래 위에 끼워 두루마리 족자처럼 만들어 놓은 연습 종이를 뜻한다. 펄프를 가공한 화학종이 생산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조선 시대의 ‘쓰기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서정주가 이승만의 구수口受

를 받아 집필한 『이승만 박사전』¹⁰⁾에도 이 단어가 보인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 소년 이승만에 대한 묘사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서정주에겐 익숙한 어휘였던 듯하다.

이렇게 부자유한 속에 엉거주춤하고 서서, 선비들은 저마다 글제를 베껴 가지고 나와, 온 정력을 쏟아서 **퐁축**에 시험 답안을 썼다. 그중에도 이미 반백이 된 시골 노인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광경은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불쌍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강조 표시-연구자

- 서정주, 「우남 이승만전」, 『미당 서정주 전집』 19-전기, 2017, 274면.

한편 ‘유년기 자서전’의 「줄포 22」에는 백정이 암소를 잡는 광경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략)… 그 모가지들, 그의 식구들이 갖다 주는 생철통을 그 아래다 받쳐 놓고는, 도한이는 다시 크으드란 식칼을 들어 들이찔렀다. 그러자 그 찔린 목 으로부터는 새빨간 선지피가 피비린내를 맵게 두루 퍼뜨리며, 쿵쿨쿵쿨 한바탕의 쏘내기를 한 줄기에 합친 것만 한 **두께**로서 쏟아져 내려 생철통을 채우기 비롯했다. …(후략)…

*강조 표시-연구자

- 서정주, 앞의 책, 2016, 178면.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세계일보본에는 ‘통게로서’, 일지사본에는 ‘통김으로서’, 민음사본에는 ‘튀김으로서’로 서술되어 있다. 일지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민음사본이 이 부분은 일지사본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10) 『이승만 박사전』은 1948년 3월 15일 삼팔사에서 간행된 전기문이다. 이 저술은 출간되자마자 압수당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미당은 이승만의 구수를 직접 받아 원고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출판사의 권유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승만의 선친 경선의 이름자에 ‘옹’의 경칭을 붙이지 않아 께뻘죄로 몰수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47년이 지난 뒤 이 저술은 다시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화산문화기획에서 간행된 『우남 이승만전』(1995.2.1.)이다. 은행나무본 전집에서는 1995년 판본의 이름을 따서 19권의 해당 부분을 ‘우남 이승만전’으로 명명하였다.

일지사본은 ‘기타, 하프 따위의 현을 당겼다 놓아 소리가 나게 하다’라는 뜻의 ‘통기다’를, 민음사본은 ‘힘을 모았다가 갑자기 탁 놓아 내뺌치거나 튀게 하다’라는 뜻의 ‘튀기다’를 채택했는데, 이는 ‘통계’가 ‘두께’의 방언임을 알지 못해 생긴 오류이다. 그러나 ‘통계’를 그대로 둘 경우 의미 판별이 어렵고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의미를 획득할 수도 없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은행나무본에서는 ‘두께’를 채택하였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기존 미당 서정주 자서전 텍스트의 문제를 짚어 보고 새로운 서정주 자서전 정보 확정 과정이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새로운 전집 작업이 단순히 옛 저작의 활자를 그대로 옮겨오는 작업이 아니라 정보 확정을 위한 치열한 판본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작가의 표현과 독자의 수용 사이에서 섬세한 배려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은행나무본 서정주 자서전은 그의 모든 전집 저작 가운데서도 원전 대조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전집의 자서전을 원전 및 여러 판본과 일일이 대조하는 일만 해도 방대한 과제에 속한다. 이 연구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이고 정보 확정의 어려운 과정 전체를 소개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

1972년에 발간된 일지사본 『서정주 문학전집』과 1994년에 간행된 민음사본 『미당 자서전』은 독자층을 배려한 흔적이 돋보이나 작가의 작품을 왜곡·훼손하여 정확성을 손실했다는 맹점이 있다. 연구 텍스트로서 결함이 많은 것이다. 이번 작업의 책임 교정을 맡았던 연구자는 전집 간행위원들(이남호·이경철·윤재웅·전옥란·최현식)과 함께 앞선 판본들을 세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¹¹⁾

11) 지면 관계상 신지 못했지만 7교 이상의 교정을 보며 400여 개의 구절을 교정·교

한 작가의 전집을 집대성하는 일은 엄중하고 지난하나 꼭 필요하다. 서정주의 장구한 창작활동 기간과 다종다양한 문학 갈래들을 집대성하는 일은 한국문학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구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집은 한 작가가 생산한 작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작가가 생산한 작품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여러 편의 이본들 가운데 정본 작품을 밝히고,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¹²⁾ 은행나무본 『미당 서정주 전집』 6권 ‘유년기 자서전’과 7권 ‘문학적 자서전’은 기존 판본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학술적으로나 출판문화사적으로나 가장 성실하고 진일보한 텍스트이다. 이 자서전의 정착과정은 한국문학 작가들의 전집 정착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본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만하다.

열하였다. 각 판본별 변이 양상을 여러 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연구자의 추후 과제로 남긴다.

- 12) 엄철·엄동섭, 「새로운 『박인환 전집』의 기획과 진행 과정」,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110면.

참고문헌

「논문」

- 남기혁, 「서정주 문학의 현재적 의미와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 『한국시학연구』 44, 한국시학회, 2015, 259~278면.
- 염철·염동섭, 「새로운 『박인환 전집』의 기획과 진행 과정」,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110~129면.
- 윤재웅, 「서정주 시 정본 확정의 원칙과 과정」, 『한국시학연구』 43, 한국시학회, 2015, 77~108면.
- 이유미, 「서정주의 자서전 고찰」,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87~320면.
- 이은지, 「서정주의 시적 자서전에 나타난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영진, 「서정주의 자전적 텍스트와 『화사집』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현식, 「서정주 시 텍스트의 몇 가지 문제」,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2003, 135~162면.
- _____, 「시적 자서전과 서정주 시 교육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1, 413~442면.

「단행본」

-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 1, 일지사, 1972.
- _____, 『서정주 문학전집』 2, 일지사, 1972.
- _____, 『서정주 문학전집』 3, 일지사, 1972.
- _____, 『서정주 문학전집』 4, 일지사, 1972.
- _____, 『서정주 문학전집』 5, 일지사, 1972.
- _____, 『질마재 신화』, 일지사, 1975.
- _____, 『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

- _____, 『천지유정』, 동원각, 1977.
- _____, 『도깨비 난 마을 이야기』, 백만사, 1977.
- _____, 『안 잊히는 일들』, 현대문학사, 1983.
- _____, 『팔할이 바람』, 해원출판사, 1988.
- _____, 『미당 자서전』 1, 민음사, 1994.
- _____, 『미당 자서전』 2, 민음사, 1994.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1, 은행나무, 2015.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2, 은행나무, 2015.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3, 은행나무, 2015.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4, 은행나무, 2015.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5, 은행나무, 2015.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6, 은행나무, 2016.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7, 은행나무, 2016.
- _____, 『미당 서정주 전집』 19, 은행나무, 2017.
-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9.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동아일보 1950.04.23. '가축 조사 결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우리나라의 우유역사', http://www.seoulmilk.co.kr/enterprise/milkstory/milk_history.sm, (2016.05.10. 검색).

세계일보 1960.1.5.~6.19. '내 마음의 편력'

월간문학 1968.11.~1971.05. '천지유정'

월간문학 1974.02.~1974.11. '속 천지유정'

【Abstracts】

The Working Process for the New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Focusing on Autobiography from the 6th and 7th
Volumes of the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Compiled by Eunhaengnamu-

Noh Hong-ju·Yun Jae-woong

The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compiled by Eunhangnamu is designed in celebration of the one-hundred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idang Seo Jeong-ju. It is the third complete edition following the 『Complete Edition of Seo Jeong-ju Literature』 (1972) published by Iljisa and the 『Corpus of Midang Poetry 』 (1983·1991·1994) and 『Midang Autobiography』 (1994) published by Minumsa. Starting with the five-volumed complete edition in June 2015, two volumes of autobiography were published in February 2016.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confirming the originals of the 6th volume titled 'Childhood Autobiography' of the 『Midao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compiled by Eunhangnamu and the 7th volume titled 'Literary Autobiography' of the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exts of Midaong Seo Jeong-ju autobiography and established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original of new Seo Jeong-ju autobiography, in the light of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author and readers. It is obvious that the works

for the new complete edition require a fierce inquiry on the printed versions for confirmation of the original, not a direct transcription of types from the old one and must be based on a delicate consideration between the author's expression and readers' acceptance.

The 6th volume titled 'Childhood Autobiography' of the 『Midao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published by Eunhangnamu and the 7th volume titled 'Literary Autobiography' of the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are the most advanced and sincerest texts, which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rinted ver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cademic history and publication culture. The settlement process of this autobiography deserves to be remember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an edition research, since it reveals a variety of problems to pay attention to, for settlement of complete editions of Korean literary writers.

Key Words: Seo Jeong-ju, Autobiography, Childhood Autobiography, Literary Autobiography, Complete Edition, Original, Printed Version, Korean Literature, Compiled by Eunhangnamu, Midang Seo Jeong-ju Complete Edition

논문은 2017년 9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0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